

“한층 역동적인 교육현장 기대”

도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213명 신규 채용... 작년 대비 18명 증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4일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213명으로 작년에 비해 18명이 증가하였으며,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57명(일반 145명, 장애 8명, 저소득층 4명), 사서직 9명,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17명,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5명, 운전직 25명이다. 이 중 공업직(일반기계, 일반

전기) 4명과 시설직(건축) 1명은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며,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 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원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도교육청(<http://edurecruit.jbe.go.kr> 교육지원센터)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6월 15일(토), 면접시험은 7월 26일(수)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5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적인 채용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가산 혜택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일일마당/시험채용정보/지방공무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물론, 교육기관의 행정 수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이 한층 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사업단이 선정됐다.

전주대, 사회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탄력

산학관커플링사업 도내 최다 선정... 탄소융합교육과정 등 5개 과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전북도 지원 2019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서 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사업단이 선정됐다. 총 9개 대학을 대상으로 23개 교육과정 사업단을 선발한 이번 사업은 평균 경쟁률 2.5대 1으로 전주대는 평균보다 2배 많은 사업단이 선정된 셈이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이공계열에 리빙랩 기반 한문화론콘텐츠교육과정, 스마트에너지교육과정, 탄소융합교육과정,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는 문화관광콘텐츠교육과정, 식품경영·식품서비스교육과정,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는 문화관광콘텐츠교육과정, 식품경영·식품서비스교육과정,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는 문화관광콘텐츠교육과정, 식품경영·식품서비스교육과정 등 5개 과정이다. 특히, 리빙랩 기반 한문화론콘텐츠교육과정, 탄소융합교육과정, 식품경영·식품서비스교육과정은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커플링사업에서 전주대가 수주하는 사업비는 10억5천3백만원으로

이 사업비를 통해 전주대 14개 학과 295명의 학생이 사회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장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 271개 참여기업도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

이호인 총장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서 커플링사업과 연계 협력한 가족회사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 전문인재를 양성해 산학협력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커플링사업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구인·구직간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통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도와 대학, 기업의 협력 체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취업률 80%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관내 초·중·고교 등 곳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위(Wee)센터 상담활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학급편성에 따른 학생 상호간 갈등 발생, 서열 형성 등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하는 학년초 시기에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더불어 위(Wee)센터 및 상담주간 홍보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특히, 본 캠페인은 임실읍을 시작으로

관촌, 오수, 갈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임실교육지원청의 전문의 교육과정장과 직원, 해당학교의 교직원, 관내 경찰서, 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임실지원교육청 위(Wee)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상담주간 및 야간상담(별빛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 사령장 수여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지난 4일 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 주요내용으로는 조교수 신규임용 1명, 보직교수 3명, 교과과장 4명, 연구년교수 2명, 조교 신규임용 4명 등이다.

새로 임용된 수학교육과 탁병주 조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87년생이라는 젊은 나이로 전주교육대학교 2019-1학기 교수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알려졌다. 보직교수 임용에는 최병연 교수(초등교육과)가 기획실장 및 산학협력단장에, 신기철 교수(체육교육과)가 교육전산원장에, 서현석(국어교육과) 교수가 대학 언론사 주간에 임용되었다.

김우영 총장은 사령장 수여식에서 “21세기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대학교교라는 우리대학 비전을 향후 함께 공유하고 키워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신규임용자들을 축하했고, 신규 보직자에게는 “새롭게 맡은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Learning Helper' 발대식 가져... 학습리더 양성 · 또래학습 체계 마련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9학년도 Learning Helper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5일 밝혔다. 'Learning Helper'는 재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에서 모범이 되는 재학생들로 각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총 52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2019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법특강, 학습상담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또래학습을 실천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학습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2019학년도 Learning Helper는 교내 신입생 프로그램인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에 각 학과의 특강자로서 학과 소개 및 학습법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특강'을 하게 된다.

Learning Helper들은 지난 해 12월 13일에는 특강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Learning Helper의 특강 준비를 위한 학습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또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유아교육과 A학생은 Learning Helper로 선발된 것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9학년도 Learning Helper'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학습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여 후배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은정 교수(유아교육과)는 “Learning Helper를 통한 스타트업 특강과 학습코치 프로그램이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을 강화하고 호원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특징인 맞춤형·협력형의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팽목향의 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5주기 학생추념위원회 모집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할 학생추념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12일 교육청 광장(우천시 강당)에서 '팽목향의 소리(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추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행사에 참여할 학생추념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도내 중·고등학생 20명으로 영상기획·촬영 6명, 영상편집 2명, 작가 2명, 아나운서 3명, 플래시몹 기획 등 행사운영 1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8일까지 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063-230-3167)로 접수하면 된다.

학생위원들은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동영상 기획·제작하고, 제작된 영상은 추념식 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학교 자체 추모 행사 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플래시몹 공연도 선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생명존중, 인간존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의 청정고원에서 자란
건강함 가득한 우리 농산물

진안로컬푸드 OPEN

[1F] 진안로컬푸드

명인·명품 진안홍삼관
홍삼 즉석 체험관
홍삼카페

[2F] 두루미방상

자연정식, 산채비빔밥
장터국밥, 버섯갈비코다리찜

진안로컬푸드
충선로
전주 사랑의집
삼성장례 문화원
진주차량등록사업소
진흥W파크 3단지아파트
전주의 방향